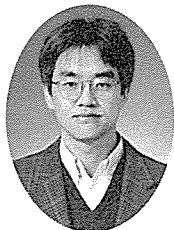


과거, 「제5회 한국과학상」 수상자 발표



▲ 崔在兪 교수



▲ 任志淳 교수

과학기술처는 구랍 4일 제5회 한국과학상 4개 부문별 수상자를 발표했다. 제5회 한국과학상은 수확분야에 포항공대 수학

과 崔在兪부교수(42세), 물리학분야에 서울대 물리학과 任志淳부교수(44세), 화학분야는 서울대 화학과 金明洙교수(47세), 생명과학분야는 연세대 생화학과 金有三교수(52세)에게 각각 돌아갔다.



▲ 金明洙 교수



▲ 金有三 교수

한국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한국과학상은 지난 87년부터 2년마다 시행되는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상으로 이번 수상자는 주관기관인 한국과학재단에서 95년 5월 시행공고후 총 9명의 후보자가 추천되어 외국석학의 자문 등 3단계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수상자에게는 대통령상장 및 부상 5천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수확분야의 최재경부교수는 미분 기하학분야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곡면에 관한 기본적인 등주(等周)부등식을 기하학(幾何學)과 해석학(解析學)의 여러방법을 결합하여 증명한 세계적인 연구성과가 인정받았다. 최교수는 77년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 86년 미 버클리대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90년부터 포항공대에 재직하고 있다. 물리학분야의 임지순부교수는 고체물리분야중 반도체 초격자의 전자구조 및 성질을 양자역학에 기초하여 체계적으로 규명한 고체에너지 계산분야 연구에 이장표가 되었다. 임교수는 74년 서울대 물리학과를 수석졸업, 80년 미 버클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86년부터 서울대에 재직하고 있다.

화학분야의 김명수교수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의 반응방향과 변화과정 측정에 대한 독창적 이론확립 및 특수실험법을 개발하여 이 분야 연구의 세계사적인 신기원을 이루었

다. 김교수는 71년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 76년 미 시카고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79년부터 서울대에 재직하고 있다. 그리고 생명과학분야의 김유삼교수는 식물 뿌리에서 일어나는 질소고정(窒素固定)과 관련된 새로운 효소발견 및 새로운 대사(代謝)경로 모델을 제창하여 질소고정 효율을 증대시켜 새로운 농업개발에 전기를 마련했다. 김교수는 65년 연세대 화학과를 졸업, 78년 미 워싱턴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83년부터 연세대에 재직하고 있다.

에너지 관리 및 기획 워크숍 개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 제10회 에너지 절약 기술 워크숍 개최식 장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소장 孫永睦)는 지난해 11월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동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중국, 몽고, 한국의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지역 석탄연소와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에너지 관리 및 기획 워크숍을 개최했다. 동북아지역에서 석탄을 연소하고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 또는 열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동북아지역 대기오염의 주범이 에너지의 비효율적인 사용이고, 산업에너지 효율성은 선진국에 비해 1/7, 1/8 수준으로 극히 낮아 이러한 문제점을 돌출하여 에너지 효율을 위한 기획,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의 실행, 에너지 효율기술을 주요과제로 하여 논의됐다.

또한 동연구소에서는 산업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기술과 건물에너지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전문연구원의 발표가 있었으며,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정

부법규와 효율적인 에너지사용을 장려하는 재정적 지원 프로그램, 대중인식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끝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통합된 최소비용 계획, 수요관리 프로그램의 계획, 통합된 자원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동연연구소 기술부에서는 지난해 11월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대전 유성호텔에서 에너지절약과 환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에너지절약기술 워크숍을 개최했다. 10회째를 맞이한 이번 에너지절약기술 워크숍에서는 산업, 환경, 전기, 건물, 수송 등 5개 분야로 나뉘어 산업에너지 절약, 고효율 연소기술, 폐자원 에너지화, 공해저감기술, 전력의 합리적 이용, 고효율 전력기기, 건축환경기술, 지역냉난방기술, 에너지절약형 수송체계, 고효율 저공해 엔진기술 등 총 10개 분야에서 40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또한 산업계, 학계, 연구계 및 관계기관의 에너지전문가들로부터 에너지절약기술의 환경적 역할에 대해 중점적이고 폭넓은 논문발표와 토론의 장으로 활용하여 우수한 에너지절약기술을 실용화, 보급에 크게 기여했다.

물과 인간생활에 관한 세미나 개최

한국환경위생학회

한국환경위생학회(회장 李容旭)는 지난해 11월18일 부산 하얏트호텔에서 물과 인간생활에 관한 세미나 및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영하박사(인제대 보건대학원교수)의 '물의 올바른 이용' 정병호박사(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부산시 상수도 현황과 개선대책' 김일박사((주)위터스 생명환경연구소장)의 '물과 인체의 효소-물이 Tyrosinase의 활성도에 미치는 영향' 등 3개의 주제발표와 함께 열띤 토론이 있었다.

한편 학술발표회에서는 '콩을 이용한 식물 펠터에 의한 중금속 및 영양염류제거에 관한 연구' 등 총 45개의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한·불 국제건설기술세미나 개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李載明)은 구랍 5일 노보텔엠버

서더호텔에서 건설공사의 감리 및 유지관리의 고도화라는 주제의 한·불 건설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프랑스와의 기술협력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건설공사의 감리 및 기존설비의 감독분야와 유지보수기술부문으로 나뉘어 17개의 주제가 발표됐다.

특히 조문영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관리연구실장)는 '한국 책임감리제도의 특성과 발전방향'이라는 발표에서 책임감리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감리원 수급, 감리대가 현실화 및 감리원 신분보장, 감리원 교육강화, 명확한 감리업무 규정, 시방서(示方書) 및 설계도면 등의 품질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국내에 적합한 종합적 건설관리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원자력안전성 심포지엄 개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林瑢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동으로 지난해 10월25일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국제회의장에서 원자력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방안을 주제로 한 제5회 원자력안전성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정근모과기처장관과 Moris Rosen IAEA안전국장을 비롯한 주요인사와 국내외 원자력안전전문가 3백여명이 참가한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과 미국의 규제기관 그리고 한국과 영국 등 원전사업자 및 제작자들의 안전문화 실천전략 및 방법론에 대해 토론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미 원자력규제위원회(USNRC)대표 Callan은 미국이 사업자들의 안전문화를 직접적으로 규제하지 않으나 규제기관의 검사인력을 투입하는데 있어 사업자들의 안전문화 평가가 사용된다고 소개했다. 결국 미국에서는 안전문화의 개선이 신중하고 보수적인 원전운전, 장기적인 보수, 규제조치에 대한 설명, NRC와 국민 및 언론과의 활발한 대화로 개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측 발표자인 은영수정책기획부장(원자력안전기술원)은 기존의 IAEA의 안전문화평가지침을 발전시켜 8개분야의 안전문화평가지표와 1백90개의 세부질의사항에 근거하는 45개의 중요지표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토목섬유 학술발표회 개최

———— 한국지반공학회

한국지반공학회(회장 姜秉熙)는 지난해 11월30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세미나실에서 토목섬유(Geosynthetics) 활용 기술에 관한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국내 토목섬유공법의 기술발전을 위해 마련된 이번 학술발표회는 신은철교수(인천대의 '시오그리드로 보강된 얇은 기초의 동적 침하거동' 등 7개의 논문발표와 함께 이송교수(서울시립대), 김홍택교수(홍익대), 이광렬박사(신경기술연구소)의 지명토론 및 질의응답이 있었다.

과거처 차관에 林昌烈조달청장 임명

정부는 구랍 23일 과거처차관에 林昌烈조달청장을 임명하는 등 차관급 2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오전 윤여준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발표된 차관급 인사는 새정부 출범후 최대규모로서 차관 23명중 11명과 외청장 13명중 9명, 안기부장 특보 1명 등 21명이 바뀌었다.

이번 차관급 인사의 특징은 전문성과 실무능력, 업무추진력이 중시되었으며 임창렬과과거처차관은 확실한 일처리와 다부진 체격에 뜻심과 리더십을 갖춘 정통 경제관료이다.

수준급 영어로 UR협상 때 금융분야에서 큰 몫을 한 임차관은 서울대 상대를 졸업, 재무부 주영 재무관·경제협력국장·이재국장, IMF·IBRD이사, 재무부 2차관보·1차관보, 조달청장을 지냈다.

공동심포지엄 개최

———— 한국생태학회·한국어류학회

한국생태학회(회장 崔賢燮)와 한국어류학회(회장 金益秀)는 구랍 2일 건국대학교에서 한국담수생계의 특성과 어류상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주기재박사(부산대 생물학과)의 '하천생태학의 발전과 우리나라의 현황' 김준호박사(전 서울대 생물학과)의 '담수생태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삼림의 역할' 김익수박사(전북대 생물과학부)의 '한국 희귀 담수어류의 서

식현황과 보존방안' 손영목박사(서원대 생물학과)의 '우리나라 섬에 사는 담수어류의 생물지리' 홍영표박사(국립과학관 연구관)의 '금강수계 어류군집 구조와 변화' 홍옥희박사(한전기술연구원)의 '하천시스템복원의 생태학적 관점' 등 총 6편의 논문발표와 함께 종합토론이 있었다.

웹서비스 3차원 검색 S/W 개발

———— 한국과학기술원

KAIST 전산학과 원광연교수팀은 최근 인터넷의 멀티미디어 서비스인 월드와이드웹(WWW)을 3차원으로 검색할 수 있는 브라우저(멀티미디어 정보검색도구)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지금까지 사용돼 온 2차원 브라우저는 문자 및 그림에 대한 평면적인 검색에 그쳤으나 이번에 개발된 브라우저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루브르박물관, 그랜드캐년 등 3차원 가상세계를 돌아다니며 입체적인 검색을 할 수 있다.

이 브라우저는 각 멀티미디어 정보제공자들의 WWW홈페이지를 3차원으로 검색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같은 홈페이지를 동시에 검색하는 다수의 이용자간에 상호인지 및 의사교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존의 2차원 가상세계간의 자유로운 전환을 지원하므로 검색대상 정보의 특성에 맞춰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외국에서 개발된 3차원 브라우저는 3차원 세계를 검색만 하거나 제한된 가상세계를 지원하는데 비해 원교수팀이 개발한 WWW 3차원 브라우저는 같은 가상세계에 접속된 검색자간의 의사소통을 가능케 한다. 이번에 개발된 3차원 브라우저는 지난해 10월6일~7일 이틀간 KAIST 대강당에서 개최된 첨단 전자엔터테인먼트 심포지엄에서 시연됐다.

새희장에 朴聖炫교수 선출

———— 한국통계학회

한국통계학회(회장 朴聖炫)는 지난해 11월4일 숙명여대에서 정기총회와 추계학술논문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신입회장에 서울대 박성현교수, 부회장에는 성균관대 허문열교수·경북대 이인석교수·전북대 김순기교수

그리고 감사에는 연세대 윤상운교수와 강릉대 안주선교수를 선출했다.

한편 학술논문발표회에서는 '대학개혁 및 통계관련학과의 통폐합문제'에 대한 심포지엄과 'INTERNET/WWW를 이용한 통계정보검색 및 활용방안'에 관한 튜토리얼 워크숍이 있었으며, 베이지안 통계학, 판별/분류 분석, 교수업적평가 포럼 등 총 57편의 학술논문이 발표됐다.

새회장에 金珍洙씨 선출

————— 한국과학기술자클럽

한국과학기술자클럽은 구립 12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9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하고, 신임회장에 매일경제신문 金珍洙부국장(산업부장), 부회장에 조선일보 金鴻차장(과학기술 및 정보통신팀장)을 각각 선출했다. 이날 과학자클럽은 한국과학기술회관내에 사무실(213호)을 마련해 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주계학술발표회 및 정기총회

————— 한국항공우주학회

한국항공우주학회(회장 洪昌善)는 지난해 11월11일 인하대학교에서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학술발표회는 전의진조정관(과학기술처)의 '국가우주개발 기본방향 강경호사장(한라중공업)의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특별강연과 8개 발표회장에서 1백5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그리고 정기총회에서는 94년도 결산서, 9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승인했다.

이어서 학회상 시상식에서는 학술상에 장근식교수(KAIST 항공우주공학과), 기술상에 김승주수석연구원(대우중공업 우주항공연구소)이 수상했다. 또 美連학술상에는 임달연교수(전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와 김항욱교수(항공대 항공기계공학과)가 수상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이봉준회장의 이임사 및 지난해 10월 24일 평의원회에서 선출된 홍창선신임회장(KAIST 항공우주공학과교수)의 취임사와 류시용부회장(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 조태환부회장(국방과학연구소) 등 올해 1월부터 2

년간 맡게 될 신임 임원단의 인사가 있었다.

생약학회 총회 · 학술대회 개최

————— 한국생약학회

한국생약학회(회장 金種源)는 구립 8일 국립보건원에서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가톨릭 약대 金種源교수를 새회장으로 추인과 함께 서울대 약대 金榮中교수를 수석 부회장으로 인준했다.

또한 1억7천2백61만여원의 95학회년도 결산안을 승인하고 96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은 초도이사회에서 확정키로 했다.

학술상은 「천연물의 항돌연변이 효과와 그 활성 성분」을 발표한 부산약대 梁漢錫교수에게 수여됐고 우수논문상은 「배초향 자하부의 Diterpene 성분과 그 세포독성」을 발표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명공학연구소 李炯圭박사가, 남강학술상은 삼육약대 任東述교수가, 한국생약대상은 元道禧전회장이 각각 수상했다.

한편 총회와 함께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특별강연 3편과 수강강연 1편, 구두발표 2편, 포스터발표 44편 등 50편의 연구논문을 했다.

96년 역서 발간

————— 천문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부설 천문대는 1996년도 역서를 발간했다. 1996년은 단기4329년으로 52일의 일요일과 17일의 법정공휴일이 있으나 설날 연휴의 하루(2월18일)와 어린이날(5월5일)이 일요일과 겹쳐 실제 공휴일수는 총 67일이 된다. 이틀간의 연휴는 없으며 3일이 계속되는 연휴는 2회로, 신정연휴인 1월1일(월)~2일(화)이 일요일과 붙어있고, 설날 연휴 2월18일(일)~20일(화)이 있다. 추석 연휴 9월26일(목)~28일(토)는 일요일과 연결되어 4일 연휴가 된다.

역서에는 매일 해와 달의 위치 및 여러가지 관측자료 등이 실려있고 아울러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양력과 음력의 원리나 24절기에 대한 정보도 수록되어 있다. 내년에는 각각 2회의 일식과 월식이 지구상에서 일어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다. ⑤7